

내년 예산 1조7418억원 편성

익산시, 균형발전 상생도시 기반 구축·녹색정원도시 인프라 조성 초점

익산시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1조 7418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602억원 증가한 수치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소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도농 균형발전 상생도시 기반 구축과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1조 6087억원과 특별회계 1381억원을 포함한 총 1조7418억원을 편성해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역사문화공간을 일상 속으로 들여와 정주여건의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먹거리로 문화관광산업을 키워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승부수를 걸었다.

이를 위해 문화 및 관광분야에 △서동생거터 유적 정비 65억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43억원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원광대 시민개발형 체육시설 조성에 32억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 27억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생태복원 녹색정원도시를 위해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 48억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 17억원 △새만금 바이오 순환립 조성 13억원 △금마저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13억원 △익산목

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 4억원 등을 반영했다.

하천 수해 및 생태환경 복구 등을 포함해 이상기후를 대비하고 SOC 등 시민 편의증진에 집중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 수해복구공사 105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7억원 △급경사지 정비 61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건설공사 84억원 △등면천 하천환경 정비 62억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중동 주차타워 및 인근 주차장 조성 41억원 △모현동 공영주차장 조성 17억원 등이다.

환경분야에서는 대기환경 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에 중점을 두고 △버스·화물차를 포함한 수소·전기차 보급에 406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55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48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품격 지속 버팀 끝에 놓인 시민들의 생활 안정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1776억원 △노인일자리 577억 △장애인 활동지원에 222억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154억 △아이돌수당 121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0억 △기초형 공익직접

지불제 411억 △농·어민 공익수당 78억 △전라차량 직불제 58억원 등을 편성했다.

골목경제를 지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에 300억원 △중양시장 주차환경개선 45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3억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을 위해 △익산형 근로장년수당 35억원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 1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0억원 △전북청년년 활력수당 10억원 △청년도전 지원 9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0억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원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6억원 등을 배정해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에 주력한다.

교육분야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10억원 익산교육협력지구 5억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과 확장현실(XR)산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 홀로그램 사업 종합성과 보고

익산시, 홀로그램·XR 미래산업 중심지로 '우뚛'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과 확장현실(XR)산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유일 홀로그램·XR 분야에 과감한 기술 투자와 전략적 산업 육성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개 기업이 익산에 동지를 틀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제품 제작·제품고도화·마케팅 등 익산시의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홀로그램·XR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까지 홀로그램과 XR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내년부터 시범과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린 성과보고회는 그간 시의 노력과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2019년부터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해 온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와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익산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테크노파크, 원광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사업 참여 기업 30개사 등이 100여명이 참석해 익산시의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사업은 올 한해 콘텐츠 제작 지원 9개 과제와 홀로그램 현장 리빙랩 지원사업의 참신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특히 홀로그램 현장 리빙랩 시민평가단의 직접적인 참여와 평가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는 한편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총력'

예결위원·기재부 등 핵심인사 만나 주요 증액 요청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해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기동 시점에 맞춰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는 14일부터 예산심의 '최종판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예산심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본격 진행 중이다.

먼저 정 시장은 국회의심의 단계에서 기재부의 의견과 검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재부 간부 등

을 만나 익산시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홍, 한병도 의원을 만나 주요 사업의 증액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 이용호 의원의 면담에서는 △홀로그램기술사업과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를 기반 기술실증 지원 등 시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실무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시기각각 변화하는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환경피해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 해결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군산시 주민들과 우드칩 공장 간 첨예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산면 우드칩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주민과 공장 대표, 군산시 부시장 이 참석하는 가운데 조정 해결을 공식화한다.

기존 점토벽돌 공장을 운영하던 공장주는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2022년 11월 군산시에 우드칩 공장으로서의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에도 차질을 빚어 많은 사립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조정·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관계 기관들이 모여 수차례 협의를 결친 결과 조정안이 도출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주민들과 공장주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시가 우드칩 공장 토지와 지장물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신청하는 데 동의하며, 사업 선정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4일 2023년 청년정책포럼 개최

군산시는 청년들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에이본 호텔 컨벤션홀에서 2023년 군산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군산 청년정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군산청년협의회가 주관해 지역청년 참여형 행사로 진행한다. 시 청년협의회가 직접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지역 청년 자생단체(모임)와 관내 대학 총학생회 등 여러 청년 및 시민을 초대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청년 당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현행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시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시백 박사(전북연구원)의 '청년 기본법 및 전북 청년정책 현황 및 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청년이 원하는 삶'에 대해 박명호 대표((주)공장공장)의 발표한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탐마루 친환경 쌀 학교급식 등 대기업 공급

익산시는 수도권 학교급식과 대기업 공급을 위하여 탐마루 친환경 쌀 원료곡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삼기능원 경제사업장에서 매입한다.

올해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 예정량은 1,500여톤이며, 100여 농가가 참여한다. 농가의 노력과 행정의 주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선별된 원료곡은 명품쌀로 인정받아 지난 6월 재선정된 서울시 노원구를 비롯한 은평구, 성북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 수도권 학교급식에 공급된다.

올해는 전국 인기를 끌고 있는 SPC그룹(파리바게트) '제주 마음센터' 원료곡으로 연간 300톤의 탐마루 친환경 쌀 공급계약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대기업 유통 판로를 확보했다.

또한 2022년부터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 1위 CJ 햇반의 프리미엄 제품인 '유가농 CJ 햇반' 원료곡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